

# '항응' 돌발 변수... 한나라 대선 악재 되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덕특구 지원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후 피감기관으로부터 항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과거정위의 항응 파장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검증으로 치달던 국정감사가 갑작스럽게 일부 의원들의 도덕성문제로 비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동아일보는 26일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한정식집과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항응을 제공받았으며 국회의원 중 2명은 술자리를 끝난 뒤 여종업원과 함께 "2차"를 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금도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의원들이 있느냐"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신당 의원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뇌물죄와 성매매특별법

## ■ 국회 과거정위 단란주점 술판 파문

### 신당·민주 "어느 때인데"... 강력수사 촉구

### 한나라 "엄중문책"... 해당 의원 강력 부인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인배 과거정위원장과 김태환 의원이 연루돼 있는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는 "연루된 의원이 있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재완 비서실장이 전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왜곡됐다"며 적극 해명했다.

술자리 항응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소속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26일 원자력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갑자기 불거진 '항응' 논란으로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회의가 개회되자마자 범여권 소속 의원들은

중심으로 지난 22일 국감 직후 일부 의원들이 대안에서 수백만원 어치 항응을 제공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인배 위원장은 술자리 항응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를 통해 철저히 사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앞서 국회에서 정보통신위의 26일 원자력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갑자기 불거진 '항응' 논란으로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회의가 개회되자마자 범여권 소속 의원들은

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일부 의원 등에 대한 항응 의혹과 관련, 수감기관 예산 책임자인 생명공학연구원 노영희 기획부장은 26일 "저녁 식사와 2차 단란주점 비용으로 나온 돈은 총 780여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노 부장은 이날 "지난 22일 일부 의원을 포함한 국정감사단 일행과 수감기관 기관장 등이 저녁을 함께 한 한정식집에서 400여만원, 인근 고깃집에서 300여 만원 정도가 나와 한정식집 음식값은 수감기관 가운데 2곳이 나눠 법인가드로 결제를 했고 고깃집은 누가 계산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의원과 수감기관 기관장들이 자리를 함께 있었던 단란주점에서는 80여만원 정도 나왔다"며 "아직 그 돈은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단란주점 일정은 예정에 없었으며 이 자리에는 의원 3명과 국감을 받은 7개 기관 가운데 2곳을 제외한 5개 기관 기관장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 시설

### 광주상의 지역경제 구심체로 거듭나야

광주상공회의소가 중도 사퇴한 전 회장의 회장 보궐선거 제출마 문제로 인한 내부 갈등을 해소했다. 파행의 원인이 됐던 마형렬 전 회장이 회장 보선에 불출마 사실을 공식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25일 임시의원 총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된 정관에 따라 새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전 회장의 불출마 선언은 광주상의의 화합과 정상화를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광주상의는 이를 계기로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봉합하고 지역경제 구심체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상의는 상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상의는 지난해 3월 회장 선거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시비로 법정다툼까지 가는 등

수 개월간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왔다. 또한 지난달 15일부터는 마 전 회장의 보선 출마자격을 놓고 회원 간 이견과 반목으로 한달 이상 파행을 거듭했다. 그 이전에도 일부 회장과 회원사의 전횡과 독선으로 상공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광주상의는 이제 지역경제 구심체라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회장 및 의원 선거 때마다 편을 갈라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운영방식부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개선해 회원사와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광주상의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지역경제 구심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국감 항응' 진상 철저히 규명 문책하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산하의 대전 소재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난 22일 피감기관들로부터 수백만원대의 항응을 제공받았으므로 드러났다.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대접받은 뒤 일부 의원들이 단란주점으로 옮겨 여흥을 즐겼다는 것이다.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이 항응을 받는 것은 국정감사권을 남용하는 행위다. 의원들은 국감기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 모든 경비를 지원받는다.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라는 의미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피감기관에서 항응을 받은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번 '국감 항응'은 국회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당사자들이 일부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등 아직 진상 규명이 안돼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음식과 술 등 항응을 제공 받은 사실만은 확실하다. 더구나 '성 접대'까지 받는 의원도 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실망해 있다. 국감에 나선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연일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의 잘못을 따지고 파헤치기보다는 상대방 대선 후보 흠집내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런 정치권이 피감기관에서 항응을 제공 받았다고 하니 국민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정치권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항응과 '성 접대'가 사실로 드러나면 윤리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형세를 낭비한 피감기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권이 또 '자기 식구 감싸기'로 얼버무리려 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전남도당위원장 불법 경선 조사

### 한나라당 윤리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실시된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일부 당원협의회 위원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줬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자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인명진 윤리위원장과 박세환 윤리관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공개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징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윤리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실시된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에 출마했던 C씨는 "당선시켜 주겠다"며 출마를 권유한 전남지역 당협위원장 4명에게 조직활동비와 사례비 명목으로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5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전달한 혐의가 2주전 포착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화순고를 방문해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강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후보 통합·연대 사실상 시작됐다"

## 정동영 후보 당선 후 첫 광주 방문 지지 호소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26일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대선 승리를 위해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 후보는 특히 '우주과학기 건설' '광주를 국제회의의 메카로' 등 광주·전남의 도약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민심공략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 후보는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격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후보가 된 사람에 대한 원천적 정당성"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대통령께서는 지금 신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 "5년 전 노무현·정몽준 후보간 단일화가 이뤄진 게 후보 등록 직전인 11월 24일"이라며 "한 달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 후보 통합과 연대는 사실상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후보나 정당을 기준으로 하면 어려우며 국민의 눈높이와 지지자를 제대로 하면 이미 (단일화에) 들어섰다"며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후보는 "토목공사시 개발을 앞세우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는 눈사람에 불과해 햇볕을 쬐이면 금방 녹아 없어질 것"이라며 "부산·울산·경남에서 5년 전 노무현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태(28일) 산행을 겸한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전국 단위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우주과학기 건설을 위한 우주항공청의 전남 건립과 광주 R&D특구 지정 ▲호남고속철도 임기내(2012년) 완공 ▲F-1특별법 조기 통과 ▲서남권개발특별법 제정 ▲지역문화·산업세계화 산실 설립 등을 통해 광주·전남의 세계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에 앞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으며, 회견 뒤 화순고에서 '한국교육의 희망-정동영의 행복한 수업'이라는 특강을 통해 "가족행복의 공적(公敵)인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2008년을 사회적 교육대혁명의 해로 선포하고, 200달러 교육제도에서 2만 달러 교육제도로 넘어가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전남 재보선 9곳으로

### 서인봉 시의원 의원직 상실

광주시의회 서인봉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동구1)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제5대 의회 출범 이후 3명의 시의원이 중도에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으며, 광주·전남지역 12·19 재·보선 대상은 모두 9곳으로 늘어났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지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겐 현금을 건네고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서 의원은 서재원·이상동 전 의원에 이어 5대 광주시의원 가운데 세 번째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서 의원의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휘발유 판매가 사상 최고 수준

### 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배럴당 100달러 시대 진입은 물론, '오일쇼크' 등 향후 유가 대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5일(현지 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전날보다 3.36달러 급등한 92.7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이 증가 기준으로 90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도 이날 하루 만에 2.14달러가 급등한 배럴당 80.53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국내 주유소에서 팔리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22-26) 전국 주유소 1천100개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ㄹ 당 1천555.09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7월 넷째주의 1천557.38원과 2.29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이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갈수록 태산

## 기아차 3분기 영업손실 1,165억

### 수출단가 인하·고가차 판매 감소

### 전년 동기보다 매출 6.7% 줄어

기아차는 올해 3.4분기에 매출 3조2천682억원, 영업손실 1천165억원, 당기순손실 551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6.7% 감소했으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279억원, 112억원씩 적자폭이 늘었다.

올해 2.4분기에 비해서는 매출은 21.0% 줄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천535억원, 1천165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기아차는 수출단가 인하, 고가차종 판매비중 감소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

한 고경비 부담 증가가 영업적자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6.7% 감소한 것은 올해 초 단행한 해외 판매법인 수출가격 인하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평균 수출단가가 8.8%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기아차는 덧붙였다.

기아차는 올해 2·4분기에 영업이익 370억원을 내면서 1년만에 영업손실의 늪에서 빠져나왔으나 1분기에 다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작년 3·4분기에 439억원 손실이 발생한 뒤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3분기에 흑자로 돌아섰으나 올해 3분기에 역시 적자로 전환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내달 14~16일 서울서 남북 총리회담 열린다

남북 정상이 개회하기로 합의한 총리회담이 다음달 14~16일 서울에서 열린다. 총리회담의 남북 대표단은 각 7명으로 결

정했으며 북측 대표단은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서울을 찾았다. 남측은 26일 개성 자남산역관에서 남북 총리회담 예비접촉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이관세 통일부 차관이 밝혔다. 예비접촉 남북 수석대표인 이 차관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7명을 포함해 수행원 및 지원인원을 40~50명 정도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D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6)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